

# Econ Snapshot

Economy | 2025.3.13



Economist 전규연 kychun@hanafn.com

RA 김형균 hyungkyunkim@hanafn.com

## 미국 2월 소비자물가: 안도감 부여, but 경계심리는 유효

### 미국 2월 CPI Review: 물가 안정에도 끝나지 않은 고민

- 미국 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.2%, 전년비 2.8%로 예상치를 하회(컨센서스 전월비 0.3%, 전년비 2.9%)했으며, 전월(1월 3.0%)에 비해 안정되는 모습
- 근원 소비자물가도 전월비 0.2%, 전년비 3.1%로 예상치 하회(컨센서스 전월비 0.3%, 전년비 3.2%)
- 주거비 부문이 전월비 0.3% 오르며 금번 물가 상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, 중고차(0.9%), 의료서비스(0.3%) 등도 물가 상승에 기여. 계란 가격은 조류독감 영향으로 계란 공급이 줄어들어 1월(15.2%)에 이어 2월에도 전월비 10.4% 상승하며 식료품(0.2%) 가격 상승을 견인
- 반면 수 개월 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던 에너지 가격은 전월비 0.2% 상승하는 데 그침. 천연가스(2.5%)와 전기료(1.0%) 가격이 상승했으나, 유가 기저효과 소멸로 휘발유 가격이 하락(-1.0%). 전월비 항공 요금도 1월 1.2%에서 2월 -4.0%로 반락하며 운송서비스 가격 하락을 유도
- 2월 소비자물가가 재차 2%대로 낮아졌고 근원 물가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한 미 연준의 부담은 완화될 전망
- 다만 여전히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리스크는 상존. 2월의 경우 대중 관세 10% 외에 실제 대외적으로 부과된 관세가 없었지만 3월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, 대중 추가 10% 관세, USMCA에 해당하지 않는 캐나다,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등이 현실화되었으며, 4월에 상호관세,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순차적으로 부과된다면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.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 추세
- 금번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당분간 금리 동결 스탠스를 유지할 전망. 고용시장은 연준이 원하는 대로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고, 물가의 상방 리스크는 높아 미 연준은 무역분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정책을 결정할 공산이 큼. 하나증권은 올해 미 연준이 6월 FOMC부터 두 차례 가량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

도표 1. 미국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2.8% 기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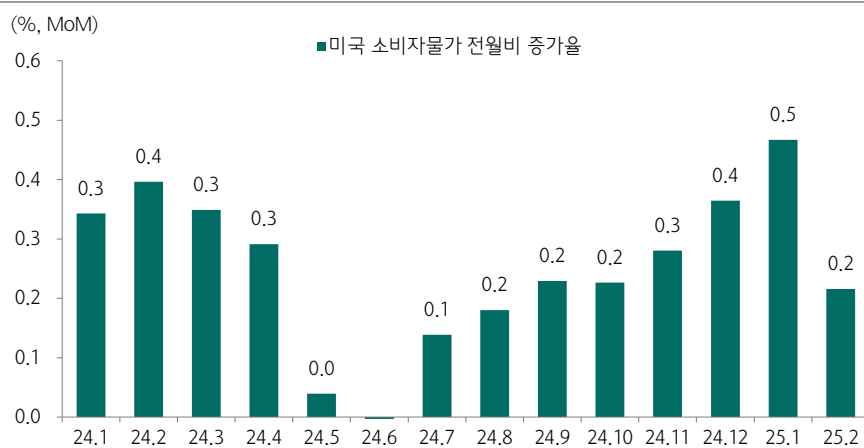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2. 미국 소비자물가 세부항목 추이

	2025-02	2025-01	2024-12	전월대비
소비자물가(% YoY)	2.8	3.0	2.9	-0.2
근원 소비자물가(% YoY)	3.1	3.3	3.2	-0.1
소비자물가(% MoM)	0.2	0.5	0.4	-0.3
근원 소비자물가(% MoM)	0.2	0.4	0.2	-0.2
식료품	0.2	0.4	0.3	-0.2
에너지	0.2	1.1	2.4	-0.9
의류	0.6	-1.4	0.1	2.0
신규 자동차	-0.1	0.0	0.4	-0.1
중고차	0.9	2.2	0.8	-1.3
의료기기	0.1	1.2	0.0	-1.1
주류	0.5	0.3	-0.3	0.2
담배	0.6	0.4	0.0	0.2
주거비	0.3	0.4	0.3	-0.1
의료서비스	0.3	0.0	0.2	0.3
운송	-0.8	1.8	0.5	-2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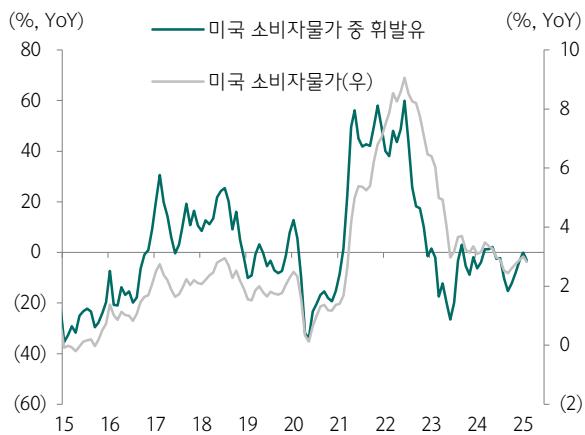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3. 미국 소비자물가 전월비 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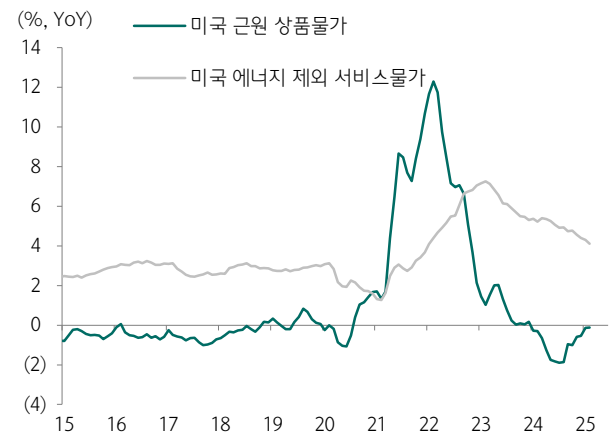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4. 휘발유 가격 하락하며 헤드라인 물가 안정을 유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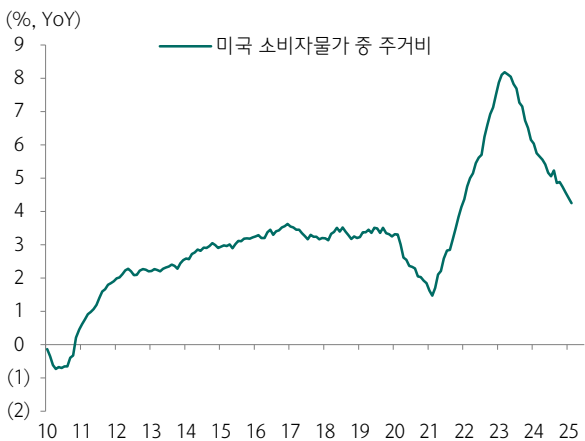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5. 서비스물가의 완만한 하락 흐름 전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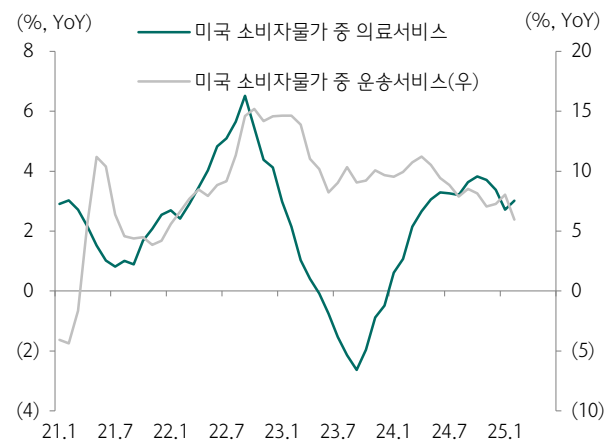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6. 주거비 하락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7. 항공료 가격 하락으로 운송서비스 가격 둔화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## 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